SV Times

2018년 12월 행복나눔재단 웹진 SV Times 06호

1. Essay

**'작고 약한 목소리'를 대변하다**

**이지애 아나운서 편**

함께해서 행복한 ‘행복얼라이언스 DAY’ 사회를 맡은 계기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의 작은 나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행복얼라이언스’뿐만 아니라 나눔에 동참하는 많은 분의 마음이 더해져

어렵고 소외된 분들이 훈훈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기원합니다.

**소외받는 이를 위한 ‘확성기’ 같은 아나운서**

세상에는 모두가 꼭 들어야 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소외되고 차별받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인데요. 그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너무 작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려면 ‘확성기’가 필요합니다.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소외당하는 이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높여보자 결심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들에 치여 바쁘다 보면 잠시 마음에서 멀어지기도 하지만, 늘 이 초심만은 지키고자 합니다. 다행히 같은 직업, 같은 가치관을 지닌 남자를 배우자로 맞이하면서 작은 발걸음이지만 이러한 나눔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되기 전, 발달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던 언니를 따라 장애인들을 만나고 도왔던 경험이 있지만, 본격적으로는 ‘승일희망재단’에 아나운서로서 재능기부를 하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3년 전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박승일 전 농구 코치의 집을 방문하면서 인연을 맺게 됐는데, 그 후 희망콘서트를 할 때마다 요청해오시면 기쁘게 사회를 봤고, 이제는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루게릭병 환우들의 작은 목소리 확산을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재능기부를 통해 나눔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

나눔에 대한 생각은 육아를 하면서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미혼모를 위한 재단인 ‘그루맘’에서 행사를 열면 사회를 보거나 홍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 역시 아이를 낳아보니 미혼모들이 떠안아야 할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함께 육아를 해도 힘든 일들이 많은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들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들지 생각해보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 22개월 된 딸아이가 무심코 하는 제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는 걸 보고 더욱 그렇게 느끼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받은 가르침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분들과 스스럼없이 어우러질 수 있었던 것처럼, 저 역시 아이에게 나눔이라는 이름의 ‘거울’이 되고자 합니다.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돕기’는 그런 의미에서 이뤄진 나눔입니다. 아이에게 돌잔치를 열어주는 대신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는 뜻에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아이 이름으로 기부를 한 것인데요. 아이가 자랄 때까지는 부모인 우리가 매년 기부를 하고, 나중에는 아이 스스로 선행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나눔부터 시작하세요**

나눔은 비단 방송이나 무대 위에서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SNS를 통해 작은 나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모델로 있는 제품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댓글로 사연을 받은 뒤 선정된 분들에게 제품을 보내드리는 거죠.

마음이 아프거나 따뜻해지는 사연을 읽어본 뒤 당첨자를 정하고 그 이유도 함께 SNS에 올리는데, 선정되지 않은 분들조차도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작은 댓글 하나가 제 마음을 크게 울립니다. 이 나눔을 통해 오히려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나눔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나에게 덜 필요한 것을 나눈다는 마음이면 됩니다. 잘 입지 않는 옷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면 깨끗하게 세탁되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유기견보호소에 헌 이불을 보내면 산에서 길러지는 유기견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1+1로 사서 남는 음식, 유통기한이 남았지만 기한 안에 다 먹지 못할 것 같은 음식을 푸드뱅크에 기부할 수도 있죠.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2. 소셜 현장 ‘S’가 간다

**일상 속 나눔을 행복으로 채우다!**

**'2018 행복얼라이언스 DAY-함께해서 행복해'**

즐기면서 나누고, 나누면서 더 행복해지는 이색 행사가 10월 27일과 11월 10일 서울, 부산에서 두 번이나 열려서 이번엔 S(에스)가 좀 바빴답니다. 바로 ‘2018 행복얼라이언스 DAY’인데요. 플리마켓에서 착한 쇼핑을 하고 토크 콘서트, 뮤직 콘서트도 열린 축제 현장을 무려 6,500명의 시민들이 찾았다죠?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저 S를 한 번 찾아보실래요?

**#함께 만드는 나눔의 장 ‘플리마켓’**

늦가을의 바람이 제법 쌀쌀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따뜻한 향기가 폴폴~. 바로 50여 개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가 함께 한 플리마켓입니다. 옷과 액세서리, 유아용품, 인테리어 소품, 미용용품, 먹거리 등 다양한 제품이 진열된 플리마켓은 온종일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물건을 사면 수익금의 일부가 기부된다고 하니, ‘득템’도 하고 기부도 할 수 있어 기쁨이 두 배입니다! 특히 행복얼라이언스 기부 연계형 상품을 판매하는 행복얼라이언스존도 분주했어요. 동구밭 발달장애 사원들이 만든 설거지 비누, 학대 위기에 있는 아동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은 마리몬드 제품, 오직 과일과 땅콩으로 만든 슈퍼잼 선물세트, 아름다운커피의 공정무역 제품들 앞에서 지갑을 꺼내던 시민들은 오늘 행복얼라이언스 DAY에서 판매한 수익금을 ‘전액’ 기부한다는 말을 듣고 더욱 뿌듯한 표정이 됩니다.

그런데 S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행복얼라이언스 DAY’를 어떻게 찾아온 걸까요? 알고 보니 행복얼라이언스가 진행하는 자원봉사활동,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행복얼라이언스가 진행하는 초대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과 행사에 관심을 갖고 찾아온 시민들, 길 가다 들른 사람들까지 다양했는데요. “행사 취지가 좋아 아침 김장봉사를 마치고 바로 참가했다”는 영은(가명) 씨는 “남편과 저 모두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하는데, 좋은 제품들을 우리 사회가 널리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눈과 귀와 마음으로 즐긴 토크&뮤직 콘서트**

 쇼핑도 하고 이벤트에 참가하고 버스킹 공연도 보고 푸드 트럭에서 먹거리로 배를 채우고 나자 시계는 5시 30분을 가리킵니다! 저는 입장 티켓을 들고 부랴부랴 콘서트장으로 향했는데요. TV에서만 보던 슈퍼주니어 출신의 가수 이특 씨와 시각장애인 방송인 이동우(부산) 씨, 이지애 아나운서(서울)를 행복얼라이언스 DAY 무대에서 사회자로 만나니 더 반가웠어요. 사회자들은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 때 이뤄지는 변화, 그 즐거운 사회변화를 만들기 위해 행복얼라이언스가 시작됐다”며, “2018 행복얼라이언스 DAY는 일상 나눔을 실천하는 모두가 함께 즐기며 더 큰 행복을 채우는 따뜻한 기부 행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오프닝을 마치자 곧바로 토크 콘서트가 시작됐어요. 이번 토크 콘서트에는 제가 좋아하는 ‘나눔 실천 연사’들이 출연하기로 돼 있어 더욱 기대가 됐어요. 연사들은 ‘일상 속 나눔으로 행복을 채우려면 우리는 뭘 어떻게, 어떻게 나눠야 할지’ 방법을 알려줬는데요,

나눔도 전염이 된다 - 염창환 박사(비타민엔젤스 창업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미국의 한 기업이 신발 한 켤레를 팔면 한 켤레를 기부하는 걸 보고 비타민 기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비타민을 산 사람들을 기부천사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결과 아이들 19만 명이 비타민을 받았습니다. 착한 소비로 기부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 천종호(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사회 폭력이 묵인되고 성문화가 왜곡되는 사회 속에서 꿈을 잃은 아이들. 이런 비행을 경험했던 아이들을 위해 2010년 사법형 그룹홈을 만들었고 청소년회복시설로 만든 데 이어, 곧 국비 지원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기적같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아이들에게 관심을 베풀어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빈곤 지역 아동 삶의 질 향상 - 니콜라 크로스타(벤덱 재단)

“태국의 건설 현장 빈민 지역 아이들에게 교육과 보건,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접목한 방식으로 효과적인 생활 습관 교육을 시킨 결과 10%의 취학률을 보이던 이 지역 아이들이 현재는 95%가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습관을 지키고 기술을 가르친 98%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소셜 임팩트입니다.”

지역민과 상생하는 이탈리아 - 알베르토 몬디(방송인, 데엘레멘트 공동 창업자)

“이탈리아는 기업이 사회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나눔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도 자연스러운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릴 적 부모님께서 인도 고아원 학생들을 후원했고 저 역시 안 쓰는 물건을 모아서 판매한 돈을 기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어렵게 사는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필요한 생필품 등을 구해드리는 지역민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연사들의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에 이어, 화려한 춤과 음악으로 가득 찬 뮤직 콘서트 시간이 됐습니다. 먼저 부산에서는 시원한 목소리의 ‘fx’ 루나 씨가 등장해 열정적인 오프닝 무대를 보여주자 관중들은 환호했습니다. 팬들에게 ‘작더라도 꾸준한 기부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공연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지난해에 이어 ‘볼빨간 사춘기’가 올해 부산에서 또다시 팬들을 만났습니다.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애정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뮤지컬 배우 한지상 씨, 정선아 씨의 웅장한 노래에 이어 마지막으로 등장한 10cm는 감미로운 노래를 불러줬어요.

서울 행사도 뜨거운 분위기였는데요. 2018년 행복얼라이언스 홍보대사이자 뮤직 콘서트의 첫 번째 주인공인 BoA 씨는 “올 한해 행복얼라이언스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아동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었다”며 “결식아동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른 가수 박정현 씨는 “일반 콘서트와 달리 기부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면 더 힘이 난다”고 말했고, 이날 피날레를 장식한 건 인기 아이돌 NCT DREAM이었습니다. NCT DREAM은 ‘열광’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커다란 환호 속에 노래 두 곡을 화려한 군무와 함께 선보였고 따뜻한 나눔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티스트들의 열정이 환하게 빛났던 무대, 귀가 먹먹할 정도로 함성이 가득했던 공연장 분위기를 저는 오래도록 잊지 못할 거예요.

**#아동이 더욱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올 한해 아동 건강 증진, 교육 격차 해소, 장애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달려온 행복얼라이언스는 43개 멤버사 및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20만 개 이상의 도시락을 결식 우려 아이들에게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날 콘서트장 내를 울렸던 함성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나눔의 물결로 스며들길 기원해 보았어요. 이 작은 나눔이 하나둘 모이고 커진다면,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즐거운 변화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행복얼라이언스의 발걸음 또한 더욱 빨라질 테니까요. 그 날을 위해 S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3. 숨어있는 SV를 찾다

**제2회 사회혁신교육자네트워크(ENSI) 컨퍼런스 개최**

**콜렉티브 임팩트로 커지는 사회혁신 교육의 힘**

사회혁신가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 도시, 지구가 건강하길 바라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노력합니다. 요즘 대학가에서는 이렇게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사회혁신가를 키워내는 노력에 한창인데요. 행복나눔재단은 이러한 대학들의 노력이 모여 더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혁신교육자네트워크(이하 ENSI)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에는 ENSI 참여 교수들과 함께 ‘사회혁신을 위한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제2회 ENSI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란? : 구체적이고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섹터가 공동의 아젠다를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는 사회 문제 해법 모델입니다.

**ENSI 컨퍼런스, 그리고 콜렉티브 임팩트**

컨퍼런스는 SK SUPEX추구협의회 사회공헌위원회 정현천 전무의 개회사로 시작됐습니다. 그는 “최근 사회문제는 개인이나 특정 조직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콜렉티브 임팩트를 통해 여러 영역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며, “ENSI가 사회혁신 대학과 교육자, 연구자 간 가교역할을 하면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임팩트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8 ENSI 운영위원장인 김종걸 한양대 교수는 ENSI를 ‘사회혁신 인재양성에 관심을 가진 교수, 전문연구자, 그리고 현장 활동가들의 공동 플랫폼’으로 소개하며, 특히 “올해는 행정학·정치학·사회복지학·환경학·공학까지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혁신을 어떻게 커리큘럼에 포함시킬 것인가 논의가 많았고, 해외 학자들까지도 연구과제에 응모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사회혁신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session1사회 혁신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콜렉티브 임팩트**

1세션은 국내외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시간으로 해외 사회혁신 전문가 발표, 국내 사례 발표, 라운드테이블 등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기조연설을 맡은 제프 코헨 FSG그룹\* 상무이사는 ‘콜렉티브 임팩트를 통해 사회혁신가 교육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 NPO, 사회적 기업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연사인 줄리 뭉크 SIX 매니저는 ‘대학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방법과 SIX\*의 사회혁신대학 네트워크 활동’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대학이 동아시아를 비롯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남미 등 세계 곳곳에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감으로써 ‘부분의 합’보다 더 큰 의미 있는 전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대학의 콜렉티브 임팩트에 대해 말했습니다.

\* FSG그룹 : 공유가치창출(CSV) 개념의 창시자이자 전략경영의 대가인 하버드대 마이클 포터 교수가 설립한 글로벌 임팩트 컨설팅 기관.

\* SIX : 영국의 영파운데이션에서 시작된 사회혁신 조직으로, 최근 EU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내 사회혁신 대학 간의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진행 중.

이어 사회혁신가를 양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사회혁신 관련 과목을 운영하시는 교수님들의 수업 사례를 들었습니다. 먼저 신현상 한양대 교수는 “콜렉티브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인재를 길러 내고자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와 연계한 ‘사회혁신 실습’ 과목을 운영했으며, 디지털마케팅을 통해 학생들과 사회적 기업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전혜숙 이화여대 박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가 개도국,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소셜 벤처를 설립하고 모바일 예측경보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한경희 연세대 교수는 학제간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대, 공대 교수 1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콜렉티브 임팩트의 성공을 위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이로 인해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봉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의 사회로 연사 5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습니다. 이봉주 교수는 △콜렉티브 임팩트를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대학이라는 특수 조직에서 콜렉티브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신현상교수**

콜렉티브 임팩트가 성공하려면 참여 주체 간 인센티브 구조를 잘 디자인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사회적 가치를 배우면서도 실질적인 스펙을 갖게 되는 것이고, 사회적 기업은 홍보 효과를 얻게 해주는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교육 효과에 대한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공대 학생 한 명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워치 제작 기업의 프로젝트에 투입됐는데, 시각장애인 고등학생이 엄마 아빠에게 ‘너 사랑해’라는 첫 음성 문자를 받은 뒤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회사 사람들과 함께 모두 부둥켜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전공을 왜 하는가에 대한 답을 사회혁신 교육이 제공해준 거지요.

**제프 코헨 상무이사**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신뢰구축입니다. 참가자가 모두 모여 프로세스 초반부터 명시적으로 공통의 신뢰, 인식을 다져야 합니다. 또한 참가 기업이나 조직의 역사,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협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콜렉티브 임팩트의 효과는 여러 조직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개별적으로는 찾지 못한 해답을 함께 찾는 것입니다.

**한경희 교수**

혼자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남아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주민센터와 같은 지역 공공기관의 지원도 꼭 필요한데요. 이는 수업을 비롯한 프로젝트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눈빛이 바뀌면서 세상에 대해 알게 되고 어려움을 뚫고 함께 갑니다. 물론 진로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줄리뭉크 매니저**

NGO와 대학은 결과에 대한 기대, 속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네트워크를 하면서 모든 대학들이 사회혁신 지원 유닛을 만들어야 했고 3년간 함께 설계했습니다. 어떤 대학은 3D 프린터를, 어떤 대학은 실험실을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었고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어떤 대학은 매우 폐쇄적이어서 사회적 기업이나 기관이 협력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보다 오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혜숙 교수**

콜렉티브 임팩트를 위해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공통된 이해나 가치관을 가지고 합의된 목표를 만들기 위해 행동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제프 코헨 연사의 말처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죠. 또 한 가지는 자원 문제인데, 행복나눔재단처럼 앞서가는 이슈나 문제에 대해 지원하는 중추 기관이 늘어난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봉주 교수**

대학 교육 그 자체만도 힘든데, 여기에 사회혁신을 위한 콜렉티브 임팩트까지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ENSI에 여러 대학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 자체도 일종의 콜렉티브 임팩트입니다. ENSI 역시 사회혁신가 양성의 콜렉티브 임팩트의 네트워크 허브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ession2사회혁신가 교육현장을 바꿀 ENSI 연구결과 발표와 현장전문가의 만남**

2세션에서는 ENSI 교수들이 지난 2년 간 사회혁신가 양성에 관련한 연구결과 발표와 함께 전문가와의 대담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사회혁신 인재양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총 8편의 연구가 진행됐고, 6편이 학술지에 게재됐거나 게재될 예정인데요. 이 중 3편에 대한 결과 발표를 듣고 연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될 수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배종태 KAIST 교수 외 <사회적 기업가의 사회 기업 개발 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적 기업가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전문성 등 개인요인뿐 아니라 특화된 창업교육과 같은 환경요인을 통해 사업 기회를 개발해 나가고 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 외 <창업멘토링이 창업멘토링 만족도와 창업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창업멘토링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내고 맞춤형 멘토링과 창업지원제도가 적절히 운용되어야 한다.

**김의영 서울대 교수 외 <지역기반 시민정치 교육의 내부적 긴장성 문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시민의식과 실천적 지식을 배우는 혁신적 정치학교육이 성공하려면 내부의 긴장성과 편향점을 극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스파이어드 다이얼로그에서는 ‘연구자와 현장전문가의 만남: 공유와 협력의 시작’을 주제로 손동원 인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세 명의 발표자, 두 명의 현장 전문가 패널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팩트 투자 전문가인 이덕준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대표, 김재현 크레비스파트너스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손동원 교수는 “패널로 모신 임팩트 투자자들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다른 분야의 분들이 참여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ENSI 참여 교수들이 발표한 연구 결과와 연계해 사회혁신가 양성을 위해 △소셜 벤처들의 사업기회 발굴 케이스 △소셜 벤처를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적합성 △임팩트 투자를 하는 이유 △소셜 벤처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조언 등 전문가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사회기업발굴은 소셜 벤처가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 미션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 게임 디자이너였는데 가족으로 인해 발달장애 아동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 문제를 일반 교육까지 확대시켜 사업기회를 발굴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갖춘 혁신가는 이처럼 자기 주변에서 느끼는 일로 비즈니스를 하고, 고객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이덕준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대표)

사회혁신가멘토링은 소셜 벤처를 돕는 창업자 멘토는 ‘당사자성’에 대한 연결점을 갖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연결점은 사회 문제일 수도 있고, 전문 해결 역량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의 문제와 공통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 연결고리를 얼마나 확장성 있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멘토링 효과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김재현 크레비스파트너스 대표)

소셜 벤처창업 희망학생들에게 교수님들께서는 일단 작은 도전이라도 공감을 해주시고 실행 방법을 함께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배들을 만나면 멋진 보상, 즉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친 보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학계에서도 그런 케이스를 연구해서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김재현 크레비스파트너스 대표)

4. Trend & Review

**금융 약자를 포용하는 대안신용평가**

지난 11월 8일, 사회혁신가 네트워킹 플랫폼 ‘Social Innovators Table’에서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발표자 중 크레파스 솔루션의 김민정 대표는 대안신용평가를 통해 청년들에게 금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발표했는데요.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할 대안신용평가가 왜 중요한 지 Trend & Review에서 집중 조명했습니다.

**은행대출 기회조차 없는 사람**

1천100만 명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해 급전이 필요하거나 자신의 꿈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종잣돈이 필요할 때 우리는 은행을 찾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아무나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지요. 과거 금융거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개인 신용평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신용평가가 낮을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상대적으로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하는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기존의 신용평가는 사실 청년, 주부, 고령층에게 너무 높은 장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대인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겐 신용을 평가할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대 청년층 330만 명을 포함한 1,100만 명이 최근 3년간 금융거래 실적이 없어 개인신용평가 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가리켜 ‘씬 파일러(Thin Filer)’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신용등급이 4~10등급 사이인 씬 파일러들은 은행에서 최저 2~3%대 금리로 돈을 빌리는 대신 대부업과 같은 20~30%대의 고금리 금융을 이용해야 하고, 결국 빚의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대안신용평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평가 방식으로, 금융 데이터가 아닌 비(非)금융데이터를 통해 신용을 평가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사람의 ‘평판’이나 ‘성향’을 믿고 돈을 빌려준다고 할 수 있죠.

**비(非)금융 데이터가 열어 준 새로운 세상**

“A고객님은 은행 첫 방문이고 신용카드도 없으시네요? 하지만 페이스북 친구들은 당신을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메일이나 문자 내용을 봐도 매우 성실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바로 대출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대안신용평가’는 이렇게 금융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보다 호의적이고 포용적인 금융을 안겨줄 것입니다. 금융에서 ‘신용’이란 ‘빌려 간 돈을 잘 갚는 것’입니다. ‘신용을 과거 금융 거래 정보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된 대안신용평가는 문자나 이메일, SNS 등에서 오고 간 대화를 비롯해 통신료 납부나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정보, 즉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성실성과 꾸준함에 점수를 매깁니다. 바로 ‘핀테크(금융 ‘financial’과 기술 ‘technique’의 합성어)’를 통해서인데요.

대안신용평가는 이 중에서도 비(非)금융 빅데이터를 이용해 금융에서 소외되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용평가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금융 빅데이터 신용평가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금융선진국, 또는 신용평가 분야가 발달하지 않은 개발도상국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글로벌 핀테크기업인 렌도(Lenddo)의 경우, 평판을 이용한 대안 신용평가 모형인 ‘렌도스코어’를 개발해 대출 승인율을 8.9%P가량 끌어 올렸다고 합니다. 렌도는 전화 통화나 문자, 이메일 등 통신기록, SNS(페이스북, 링크드인, 구글, 야후, 트위터 등)에서의 평판을 이용해 개인 성향을 파악하고, 디지털 자료가 없는 경우 인성검사를 통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또한 독일의 신용평가사 ‘크레디테크(Kreditech)’는 은행 거래정보를 포함해 페이스북과 이베이, 아마존 등에서 수집한 정보를 반영하고 있고, 미국의 신용평가모델 개발회사 피코(FICO)는 불법 체류자가 많은 미국이나 금융이 발달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통신료와 전기료, 수도료, 임대료 납부 내역을 분석해 신용도를 분석하는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퀴즈를 풀어 인성평가를 실시한 정보로 신용도를 평가하는 영국 회사 ‘비주얼 디엔에이(VisualDNA)’도 있고요.

**소외계층에게 ‘신용’이라는 자산을 만들어 드립니다!**

우리나라 역시 통신사와 인터넷쇼핑몰, SNS 등을 개인 신용평가에 이용하는 금융사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국내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은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돼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2014년 카드회사 정보유출사태 이후 강화된 정보보호 규제가 이를 더욱 어렵게 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최근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흐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민간 중금리 대출 확대’ 방침에 따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은행 및 저축은행 등 기존 금융권에도 이런 비금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 중이거나 시범적으로 활용하는 곳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번에 SK 사회공헌위원회가 우리은행, SK플래닛과 함께 개발할 대안신용평가 모델 역시 비금융 빅데이터 기반 기술을 활용하는데요. 이 모델은 특히 금융 정보가 부족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포인트 적립 정보와 온라인 구매 정보 등 SK플래닛이 보유한 비금융 빅데이터와 기술 역량을 활용해 신용 등급과 점수 등을 산정하는 이 대안신용평가 서비스는 기존 신용평가에서 소외돼 고금리 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새 옷’과도 같이 든든한 신용을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이러한 대안신용평가를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년들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고 건강한 경제생활을 영위해 나가길 바랍니다.

5. The Social Innovators

**‘따뜻한 첫 금융’을 청년에게 드립니다**

**크레파스 솔루션 김민정 대표 편**

2장 : “청년의 꿈과 따뜻한 금융 기회를 제공할 투자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에 도전하겠습니다!”

3장 : 지난 20년간 금융권의 개인신용평가 모형을 만들어 온 크레파스 솔루션 김민정 대표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4장 : 크레파스란 ‘크레디트 패스(Credit pass)’의 약자인데요.어릴 적 크레파스로 꿈을 그렸듯 꿈을 돕는 금융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5장 : 대안적인 신용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이 없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금융의 기회를 주는 새로운 플랫폼을 세상에 내놓은 크레파스 솔루션.

6장 : 김민정 대표는 왜 이런 일을 기획한 걸까요?

7장 : “금융은 한자어로 金融이라고 씁니다. 금을 녹여 고루 퍼질 수 있게 한 것이 금융인 거죠.금융기업들에겐 기회와 자본을 연결해서 우리 세상을 더 활력 있는 곳으로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 Social Innovators Table 6회차 발표 中 -

8장 : 하지만 금융은 유독 약자에게 가혹합니다.

9장 : 김민정 대표는 ‘베니스의 상인’에서 청년의 살점을 빼앗아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고리대금업자의 이야기가

10장 : IMF 당시 채무 때문에 신체포기각서를 써야 했던 현실로 나타나자

11장 : 금융 부문에서 대안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2장 : 금융의 주요 소외계층 중 하나는 청년. 청년 가운데 고금리 대출자는 11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3장 :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청년의 신용평가는 6등급이라서 은행 대출 대신, 대부업 같은 고금리를 이용하곤 합니다. 신용평가를 근거 삼아 대출을 ‘거절’당하니까요.

14장 : 그래서 “거절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주기 위한 대안 평가기준을 적용해 보자”는 게 김 대표의 생각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청년들을 찾는다는 것인데요.

15장 : 예를 들어 청년이 핸드폰 요금을 얼마나 잘 냈는가 하는 성실성과 평판, 개인성향 등을 빅데이터로 파악하고 펀딩 투자자들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6장 : 실제, 이런 행동 패턴 데이터 분석으로 대출을 해준 경우 상환율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17장 : 미국 렌도(Lendo)사\*와 함께한 이 기술은 세계경제포럼으로부터 ‘세계를 바꿀 혁신기술’로 인정받았고요.

\*미국 렌도(Lendo)사 : 비금융 대안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및 비대면 인증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세계 15개 국가에 비금융 리스크 평가를 위한 점수를 제공하고 있다.

18장 : 최근 크레파스 솔루션은 크라우드 펀딩 ‘청년5.5’를 출시했습니다. 착한 청년에게 5.5%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죠.

19장 : 그렇다면 누가 청년들에게 돈을 빌려줄까요? 바로 ‘선한 의지’를 가진 투자자입니다.

20장 : 은행 이자 정도로 자신의 돈이 좋은 곳이 쓰이기를 원하는 지역민, 지역사회, 기관 등의 펀딩 투자자가 필요합니다.

21장 : 청년에게 직접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주면서 대출금을 더 잘 갚을 수 있도록 멘토링도 해준다면

22장 : 선한 금융을 사다리 삼아 성장한 청년이 또 다른 후배에게 기회를 주는 선순환이 될 수 있겠지요.

23장 : 청년에게 더 따뜻한 첫 금융을 주고 싶은 크레파스 솔루션과 함께 청년들의 꿈을 응원해보지 않으시겠어요?

6. SV, 세계는 지금

**SIB편**

Trend&Review에 소개된 대안신용평가와 같이 최근 금융과 관련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성과연계채권(SIB)도 그 중 하나인데요. 세계적인 사회혁신 관련 매체인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한국어판>의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New Form of Capitalism)’라는 기사에 소개된 SIB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납세자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와 달리 사회성과연계채권(SIB•Social Impact Bond)은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실행한 후, 결과(성과)에 따라 돈을 지급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비용을 지급한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하죠. 이는 실패한 프로젝트에 세금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SIB는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2010년, 피터버러(Peterborough) 지역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SIB가 활용되었고, 록펠러 재단과 같은 민간 투자자들이 참여했는데요.

2017년 7월 ‘피터버러 SIB’를 설계한 비영리단체 ‘소셜 파이낸스’는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영국 법무부는 재범률 7.5% 감소를 목표로 했으나 이보다 높은 9% 감소를 달성했습니다. 그 결과 민간 투자자들은 원금 상환은 물론이고 연 3%를 넘는 이자수익을 얻었죠.

문제점은 존재합니다. 첫째, SIB를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피터버러 SIB의 경우 단기 수감자 3,000명을 대상으로 재범률을 측정했는데요. 이처럼 결과의 양적 계량화가 쉬운 문제는 SIB 적용이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정 폭력 완화 등과 같이 질적인 문제는 목표 설정 및 프로젝트 결과(성과) 측정이 어렵죠.

둘째, 결과를 측정할 역량 있는 조직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제를 통한 확산이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보상할지, 어느 정도의 목표를 제시할지 등 각각의 SIB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 이상의 무언가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SIB와 같은 혁신적 문제해결 솔루션의 출현은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의 등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New Form of Capitalism)’ 기사 원문 바로가기

번역 및 요약: 김은주(한양대학교 경영학부•사회혁신융합전공 16학번)

- 다양한 사회 구성원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의 형태에 관심이 있다.

7. Social Talk Talk

**행복나눔재단, 서울대•한양대와 사회혁신 인재 양성 위한 MOU 체결**

행복나눔재단이 서울대•한양대와 사회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와 함께 사회과학대학 사회혁신교육연구센터와 환경대학원 도시사회혁신 전공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한양대학교와는 학부-석사-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15기 리더그룹 모집 완료**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이하 SUNNY)’가 15기 리더그룹을 모집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모집한 SUNNY 리더그룹은 총 70명으로, 내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서울, 인천부천, 수원경기, 대전충남, 청주충북, 광주전남, 부산경남, 제주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스브이TV, 아이들의 상상이 가방이 된다?**

사회 편견에 가려진 아이들에게 미술 시간을 선물하고, 함께한 아이들의 행복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디자인 제품을 만드는a'dren - 에이드런을 소개합니다.

행복나눔재단 에디터들이 직접 에이드런 사무실을 방문해 아이들의 이야기가 담긴 멋진 디자인 제품을 살펴봤는데요. 그 행복한 순간! 지금 확인하세요.

**청년 직업 교육 프로그램 SK 뉴스쿨, 2018 졸업식 성료**

올해 10주년을 맞은 푸드(Food) 분야 전문 직업 교육 프로그램 ‘SK 뉴스쿨’이 11월 28일 ‘2018 졸업식’을 개최하고 외식 산업 리드할 청년 인재 28명을 배출했습니다. 올해로 10년 차인 SK 뉴스쿨은 지금까지 푸드 분야에 특화된 청년 인재를 310명 배출하며 외식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사고 파는 마켓! SK 행복나눔 바자회**

연말을 맞아 SK 관계사 사옥에서 릴레이로 열리는 ‘SK 행복나눔 바자회’ 때문인데요. 12월 18일까지 이어질 SK 행복나눔 바자회, 행복이 오고 가는 현장을 만나보세요.